

## GE헬스케어, 시아 무사비 한국사업 총괄 신임 사장 선임



(2014년 3월 10일 - 서울) GE헬스케어는 오늘 GE 헬스케어의 한국 내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시아 무사비 (Sia Moussavi)(47세) 사장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시아 무사비 신임 사장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총 22년, 그 중 GE에서 17년의 경력과 노하우를 쌓은 헬스케어 산업의 베테랑으로서, 앞으로 GE헬스케어 코리아의 비즈니스 성장, 한국 정부와 헬스케어 업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및 한국에서 세계로(In Korea, For the World) 정책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아 신임 사장은 “GE헬스케어의 전략적 성장 거점인 한국 시장에 부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며, “한국은 뛰어난 인재와 높은 기술력, 세계적 수준의 의료환경 등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GE헬스케어가 보유한 혁신적인 기술과 솔루션을 고객들에게 제공하여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한국 경제와 한국의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GE헬스케어 코리아 신임 사장으로 임명되기 전 2011년부터 GE헬스케어 터키 및 중앙 아시아의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으며, 그 이전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지에서 GE헬스케어 영업 및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부를 총괄한 바 있다.

시아 무사비 신임 사장은 캐나다 소재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에서 공학 물리학/전기공학 학사학위와 생물의학 공학 및 헬스케어/기술경영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국제경영 MBA를 취득했다.

###

### GE헬스케어에 대하여

GE헬스케어는 전세계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비용의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혁신적 의료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GE는 역량 있는 인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난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GE헬스케어는 의료영상, 소프트웨어 및 IT, 환자 모니터링 및 진단에서부터 의약품 개발, 바이오 약품 제조 기술, 그리고 성과 개선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의료진들이 환자들에게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GE헬스케어코리아는 '헬스케어'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1980년대에 한국에 진출(1984년 삼성의료기기로 시작), 한국 헬스케어산업의 역사를 함께 일궈온 기업이다. 총 600여명의 헬스케어 전문인력들이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경기도 성남시에 초음파 진단기기 생산 및 인천 송도에 GE Healthcare IT Korea Technology Center를 유치하는 등 한국 헬스케어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과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